

##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서울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행동

김대봉<sup>1</sup> · 김학희<sup>1</sup> · 김미혜<sup>2</sup> · 강봉주<sup>3</sup> · 고경란<sup>4</sup> · 고은영<sup>4</sup> · 곽진영<sup>5</sup> · 국신희<sup>6</sup> · 김민정<sup>7</sup> · 김승자<sup>8</sup>  
김은경<sup>7</sup> · 문우경<sup>8</sup> · 박지선<sup>9</sup> · 백문희<sup>1</sup> · 서보경<sup>10</sup> · 손은주<sup>7</sup> · 신정희<sup>11</sup> · 신희정<sup>1</sup> · 이재희<sup>3</sup>  
임현우<sup>13</sup> · 조정수<sup>8</sup> · 조나리야<sup>8</sup> · 차은숙<sup>3</sup> · 차주희<sup>8</sup> · 한부경<sup>6</sup> · 한송이<sup>13</sup> · 최혜영<sup>11</sup>  
조병제<sup>6</sup> · 이원철<sup>12</sup> · 정수영<sup>4</sup> · 오기근<sup>7</sup>

<sup>1</sup>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sup>2</sup>김미혜 유 클리닉, <sup>3</sup>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sup>4</sup>한림의대 영상의학과,  
<sup>5</sup>포천중문의대 영상의학과, <sup>6</sup>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과, <sup>7</sup>연세의대 영상의학과, <sup>8</sup>서울의대 영상의학과, <sup>9</sup>경희의대 영상의학과,  
<sup>10</sup>건국의대 영상의학과, <sup>11</sup>이화의대 영상의학과, <sup>12</sup>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sup>13</sup>한송이 유 클리닉

**목적:** 설문지를 통해서 서울시와 서울 근교 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조기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유방암 무료검진행사가 열린 서울시청 앞 광장 (A 행사장)에서 탈복자와 노인을 일부 포함한 일반 시민 371명(22세에서 75세, 평균나이 49.0세)을 대상으로, 그리고 서울무역전시장 (B행사장)에서는 일반 시민 534명(19세에서 102세, 평균나이 48.5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의 지식에 관한 문항, 유방암 검진 (유방자가검진 및 선별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 그리고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유방자가검진 여부에 대하여 A 행사장에서는 응답자의 46.0%, 그리고 B행사장에서는 50.9%가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행사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p=0.171$ ). 생애 선별유방촬영술은 A 행사장에서 51.5%, B 행사장에서 57.1%가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두 행사장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p=0.086$ ). 두 행사장 모두 유방촬영시행의 가장 큰 동기는 정기검진으로 응답하였고 유방검진의 가장 큰 장애는 시간이 없어서 라고 응답하였다. 유방암 지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B 행사장이 평균 1.52개로 A 행사장의 1.32개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p=0.007$ ).

**결론:** 두 행사장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 낮았고 행사장 간에 유방암검진을 위한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조사는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 서 론

국내의 유방암 발생은 증가 추세로 2001년부터 여성

암 중 1위로 부상하였으며,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유방암을 포함한 5대암검진 체계를 확립하였다 (1, 2). Sadler (3) 등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낮은 유방자가검진율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나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한 조사자료는 많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 1년간 유방검진 수검율이 6.1%, 이원철 등 (5)의 보고에 따르면

통신저자 : 김 학 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 - 1  
Tel. (02)3010 - 34390, Fax.(02)479 - 0090  
E - mail: hhkim@amc.seoul.kr

1997년 의정부 지역에서 생애유방촬영술이 21.6%로 보고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인 한국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분석에 따르면 2001년에 정상대조군보다 유방암환자군에서 검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암환자군이 11명밖에 되지 않았다 (6).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행동을 아는 것은 유방암 선별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저자들은 이미 2004년 전라남도 화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조기검진 수검 시행여부를 알아보았다 (7). 이번 조사는 같은 설문지를 사용해서 서울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청 앞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유방암 검진행동에 대해 조사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유방암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 및 검진을 목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2005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인과 탈북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사업행사를 시행하였다. 행사기간 중에 대한유방검진학회와 대한유방영상의학회는 유방암무료검진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기간 중 참석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방암에 대한 설문지를 한 부씩 작성하게 하였고 이들 중 선별 유방촬영 대상에 해당하는 40세 이상의 여성 중 1년 이내에 유방촬영 경험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무료유방촬영을 시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 905명이 설문지 작성을 하였으며, 참여 여성들의 나이는 평균 48.7세(19세 - 102세)로 40세 이상이 659명(73.6%)이었다. 참여여성 중 10명은 나이를 알 수 없었다. A 행사장에 참여한 371명의 나이는 평균 49.0세(22세 - 75세)이었고 4명은 나이를 알 수 없었으며 40세 이상이 259명(70.6%)이었다. B 행사장에 참여한 534명의 나이는 평균 48.5세(19세 - 102세)이었고 6명은 나이를 알 수 없었으며 40세 이상이 400명(75.8%)이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거주지는 행사장과 가까운 서울과 서울인근 지역이었다.

설문지는 참여자의 나이, 유방암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5 문항,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에 대한 동기, 장애, 그리고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중 일부가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에 대한 동기와 장애를 묻는 문항에 다중응답을 하였다. 설문

지의 내용은 미국암학회에서 제시한 건강한 여성에서 조기유방암 진단을 위해 20 - 30대는 임상유방진찰을 3년마다 받고, 40대부터는 검진유방촬영을 매년 시행하며, 20대부터 유방자가진찰을 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한다는 권고안 (8)을 기준으로 유방 자가진단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사용하였고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에 대한 동기와 장애의 기술 통계는 다중응답분석을 사용하였다. 나이를 알 수 없는 10명은 모든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 결 과

### 유방자가검진

유방 자가검진조사에서 A 행사장은 설문참여 여성 중 166명(18.7%)이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B 행사장은 267(30.1%)명이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두 행사장 간에 유방자가진단율의 차이는 없었다 ( $p=0.171$ ). 연령대 별 유방자가검진율 조사에서 두 행사장 모두 40세 이상의 여성이 40세 미만의 여성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 $p<0.0005$ ).

### 선별유방촬영술

생애 선별유방촬영술은 A 행사장에 참여한 여성들 중 185명(51.1%)이 받았으며 유방촬영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정기검진 84명(45.4%)이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32명(17.3%),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 28명(15.1%), 주위 사람의 권유 21명(11.4%), 언론 매체의 홍보 12명(6.5%), 그리고 기타 12명(6.5%)의 순이었고 무응답이 4명(2.2%)이었다. 참여여성 중 40세 이상에서 1년 내에 유방촬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28명(16.7%)이었다. 유방촬영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시간이 없어서인 경우가 47명(24.7%), 귀찮아서 33명(17.4%),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31명(16.3%),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28명(14.7%),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27명(14.2%), 기타 35명(18.4%)으로 조사되었다.

B 행사장에 참여한 여성들 중 298명(57.1%)이 생애 선별유방촬영술을 받았으며 유방촬영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정기검진 164명(55.0%)이었고 다음으로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 45명(15.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34명(11.4%), 주위 사람의 권유 26명(8.7%), 언론 매체의 홍보 14명(4.7%), 그리고 기타 17명(5.7%)의 순이었으며 무응답이 9명(3.0%)이었고 참여여성 중 40세 이상에서 1년 내에 유방촬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7

명(20.9%)이었다. 유방촬영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시간이 없어서가 35명(19.8%), 귀찮아서 30명 (16.9%),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29명 (16.4%),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24명(13.6%),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21명(11.9%), 기타 24명 (13.6%), 그리고 무응답이 25명(14.1%)이다 (Table 1, 2). A와 B 행사장간에 생애 선별유방촬영술의 경험에는 차이가 없었다 ( $p=0.086$ ).

참여여성 중 1년 이내에 유방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은 A 행사장이 10.8%로 그리고 B 행사장은 14.3%로 조사되었다.

### 유방암의 지식

유방암의 지식에 관한 질문의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있다. A 행사장은 83.9% 그리고 B 행사장은 80.9%가 두 개 이하를 맞추었다. A 행사장에 참여한 여성들은 유방암 지식에 대한 문제에 평균1.32 개 (표준편차; 1.106)를 맞추었고 B 행사장에 참여한 여성들은 평균 1.52개 (표준편차; 1.056)를 맞추었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0.007$ ).

### 고 찰

금번 조사에서 A와 B 행사장의 참여여성 중 46.0%와 50.9%가 유방자가진단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라남도 화순지역 (C 행사장)의 55.7%와 비슷하였고 생애 선별유방촬영술도 51.1%와 57.1%로 C 행사장 (54.7%)과 비슷하였다. 생애 선별유방촬영술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 중 유방촬영술의 시행 동기는 A, B, 그리고 C 행사장 모두 정기검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45.5%, 55.0%, 34.7%) 유방검진에 대한 장애로는 A와 B 행사장은 시간이 없어서 (24.7%, 19.8%)가 가장 높게 나왔고 C 행사장은 기타가 31.9%로 가장 높게 나왔었다. C 행사장을 포함하여 금번 조사의 설문지 결과를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으로 정답을 맞춘 수를 조사

했을 때 차이가 있었으며 ( $p=0.003$ ) Tukey의 다중비교법에 의하면 A 행사장이 B 와 C 행사장에 비해 낮게 나왔고 ( $p=0.021$ ,  $p=0.006$ ) B 와 C 행사장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 $p=0.374$ ).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각 행사장의 참여자가 모두 자발적이긴 하지만 A 행사장에는 탈북자와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부 이유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금번 조사의 자료수집방법은 연구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집단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905명의 설문지를 얻은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통제가 어렵고 낮은 응답률과 신뢰성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로 10명은 자기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10개의 질문들 중 문항 당 9명에서 47명까지 무응답을 한 결측치가 있었다. 또한 유방 촬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검사를 받아 본 이유에 응답하거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유방 촬영술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에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본 조사의 또 다른 제한점은 대상 여성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존재한다. 또한 기본정보로써 참여여성의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지역사회 여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

금번 조사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지 작성, 참여자의 구성, 조사방법 등에 여러 제한점이 있으나 일반

Table 2. 생애선별유방촬영술의 장애

| 유방검사의 장애           | A 행사장      | B 행사장      |
|--------------------|------------|------------|
| 귀찮아서               | 33 (17.4%) | 34 (14.5%) |
| 시간이 없어서            | 47 (24.7%) | 64 (27.4%) |
|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 27 (14.2%) | 44 (18.8%) |
| 어디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 31 (16.3%) | 15 (6.4%)  |
|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 28 (14.7%) | 31 (13.2%) |
| 기타                 | 35 (18.4%) | 53 (22.6%) |

A 행사장-대한의사협회, B 행사장-서울시의사회

Table 1. 생애선별유방촬영술의 동기

| 생애선별유방촬영술의 동기 | A 행사장      | B 행사장       |
|---------------|------------|-------------|
| 정기적인 건강검진     | 84 (45.4%) | 164 (55.4%) |
|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   | 28 (15.1%) | 45 (15.2%)  |
| 언론매체의 홍보      | 12 (6.50%) | 14 (4.7%)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  | 32 (17.3%) | 34 (11.5%)  |
| 주위사람의 권유      | 21 (11.4%) | 26 (8.8%)   |
| 기타            | 12 (6.5%)  | 17 (5.7%)   |
| 무응답           | 4 (2.2%)   | 7 (2.4%)    |

A 행사장-대한의사협회, B 행사장-서울시의사회

Table 3. 유방암의 지식에 대한 정답수

| 정답수 | A 행사장      | B 행사장      |
|-----|------------|------------|
| 0   | 100(27.3%) | 96(18.9%)  |
| 1   | 121(33.0%) | 180(34.1%) |
| 2   | 87(23.7%)  | 151(28.6%) |
| 3   | 48(13.1%)  | 87(16.5%)  |
| 4   | 10(2.7%)   | 13(2.5%)   |
| 5   | 1(0.3%)    | 1(0.2%)    |
| 총   | 367(100%)  | 528(100%)  |

A 행사장-대한의사협회, B 행사장-서울시의사회

시민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의 비교와 조기검진을 위한 행동을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1.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1.1-2001.12). 보건복지부 2003.2
2.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2.1-2002.12). 보건복지부 2003.12
3. Sadler GR, Ryujin LT, Ko CM, Nguyen E.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1; 1(1):7
4. 남정자, 최정수, 김봉정, 주훈배. 한국인의 보건의식 행태: 1995년도 국민보건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1995
5. 이원철, 노운녕, 김영복, 박용문, 맹광호. 의정부지역 암 조기검진 현황 및 관련 특성 분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1999
6. 박순일. 한국인의 주요 상병 및 건강행태 분석: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건강부분 심층분석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2
7.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전라남도 화순 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 27-31
8. American Cancer Society. ACS Guidelines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Available at: <http://www.cancer.org> Accessed Apr 5, 2005

##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 Seoul by Survey

Dae Bong Kim, MD.<sup>1</sup>, Hak Hee Kim, MD.<sup>1</sup>, Mi Hye Kim, MD.<sup>2</sup>, Bong Joo Kang, MD.<sup>3</sup>, Kyung Ran Ko, MD.<sup>4</sup>, Eun Young Ko, MD.<sup>4</sup>, Jin Young Kwak, MD.<sup>5</sup>, Shin Ho Kook, MD.<sup>6</sup>, Min Jeong Kim, MD.<sup>7</sup>, Seung Ja Kim, MD.<sup>8</sup>, Eun Kyung Kim, MD.<sup>7</sup>, Woo Kyung Moon, MD.<sup>8</sup>, Ji Seon Park, MD.<sup>9</sup>, Moon Hee Paik, MD.<sup>1</sup>, Bo Kyoung Seo, MD.<sup>10</sup>, Eun Ju Son, MD.<sup>7</sup>, Jung Hee Shin, MD.<sup>11</sup>, Hee Jung Shin, MD.<sup>1</sup>, Jae Hee Lee, MD.<sup>3</sup>, Hyeon Woo Yim, MD.<sup>13</sup>, Kyung Soo Cho, MD.<sup>8</sup>, Nariya Cho, MD.<sup>8</sup>, Eun Suk Cha, MD.<sup>3</sup>, Joo Hee Cha, MD.<sup>8</sup>, Boo Kyung Han, MD.<sup>13</sup>, Song Yee Han, MD.<sup>11</sup>, Hye Young Choi, MD.<sup>6</sup>, Byung Jae Cho, MD.<sup>12</sup>, Won Chul Lee, MD.<sup>12</sup>, Soo Young Chung, MD.<sup>4</sup>, Ki Keun Oh, MD.<sup>7</sup>

<sup>1</sup>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sup>2</sup>Kim Mi Hye Breast Clinic,

<sup>3</sup>Departments of Radiology,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p>4</sup>Hallym University, <sup>5</sup>Pochon Cha University, <sup>6</sup>Sungkyunkwan University, <sup>7</sup>Yonsei University,

<sup>8</sup>Seoul National University, <sup>9</sup>Kyung Hee University, <sup>10</sup>Konkuk University, <sup>11</sup>Ewha Womans University,

<sup>12</sup>Department of Epidem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p>13</sup>Han Song Yee W Clinic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 Seoul by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371 women (22 to 75 years, mean age-49.0 years) at the square of the Seoul city hall (event A), and 534 women (19 to 102 years, mean age-48.5 years) at Seoul Trade Exhibition Center (event B),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fre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and drew up the questionnaire by herself.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age of participant, questions for knowledge of breast cancer, attitude and behaviors related to breast cancer screening.

**Results:** At event A, 46.0%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breast self examination and at event B 50.9%.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reast self examination between A and B ( $p=0.171$ ). At event A, 51.5%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mammogram and at event B 57.1% ( $p=0.086$ ). The most frequent barrier related breast cancer screening was inconvenience of take time and the most frequent cause was regular checkups. In knowledge about breast cancer, event B (mean=1.52) was superior to event A (mean=1.32) ( $p=0.007$ ).

**Conclusion:** The majority of these women had somewhat poor knowledge about breast cancer.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behavior for breast cancer screening between the two events.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essentia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plan and develop screening program.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